



## [낙농경영] 뉴질랜드 낙농업계, 코로나19 백신접종 난항 우려

- 정부 당국 농가 대상 별도의 백신 접종 특별계획 없어 우려 확대



최근 뉴질랜드 전역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4단계 봉쇄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들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021/22년 원유생산시즌이 시작된 뉴질랜드는 평년 7월 말부터 9월 송아지 분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낙농가들은 백신 접종할 여력이 없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낙농업계는 의료업 등 필수산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낙농가도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낙농가들의 경우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리상의 이유로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부가 농가들을 위한 별도의 백신 접종 특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 없음을 발표함에 따라 낙농업계는 물론 농업계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출처 : stuff.co.nz, 9월 6일자 >

## [시장동향] 美 합성유제품 스타트업, 크림치즈 출시 앞뒀

- 유청과 효모 균주를 발효시켜 유제품과 유사한 풍미와 질감 구현



최근 건강상의 문제 또는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합성유제품 스타트업이 젖소 우유가 아닌 효모 균주를 활용한 크림치즈를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는 유청과 효모 균주를 합성해 발효시켜 일반 우유와 거의 동일한 유청 단백질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출시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비건 크림치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식물성 제품과 달리 유제품과 유사한 풍미와 질감을 구현해냈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우유가 아닌 균주를 활용해 유당, 호르몬 또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통 유제품과 구별이 어려운 맛을 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성 유제품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mashed.com, 9월 5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